

2015년 10월 18일 주일 예배 "야고보서(1) 산상수훈의 실천" (약 1:1)

<도입>

야고보서는 1 장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친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내 형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주인으로서, 또한 구주로서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두 개의 정상을 넘어서...

(1) 2:14~에서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영적 도구이며, **의롭다함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탁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란 평범한 지적인 동의, 입술의 고백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 이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 보면 믿음은 마음이 동하여 말로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받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대 상황 속에서 생명을 내 놓을 결단으로 전폭적 신뢰와 의탁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믿음의 참 본보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 이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당시 믿음에 대해 오해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행칭의"를 말합니다. 2:24, 25 참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

→ 성경은 이신칭의와 이행칭의를 동시에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숙지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개념입니다(율법 준수 행위 구원론과 구별해야 함).

(2) **두 번째 함께 넘어야 할 정상 4:8**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본다면 이질적이거나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오해가 있었습니다.

- 야고보 공동체에 있었던 욕심이 과한 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향하여 혼신을 쏟으며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 채워진 재물과 명예로 만족하기를 원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유업(상과 선물)을 현세적인 것으로 제한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 은혜로 족하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 야고보는 이들의 영적 게으름을 전향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선명히 보고, 누리게 된답니다" 영적 축복의 길로 나아가자는 쉽고 단순한 핵심적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과 역사에 부으시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2] 두 정상의 주제에 따르는 소 주제들:

i. **지혜(wisdom)**: 보이지 않는 사랑이 형태나 스타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지혜가 없으면 사랑이 가꾸어지지 않고, 사랑의 quality가 떨어진다.

ii. **이겨야 할 시험(test)과 인내(perseverance)**: 시험은 옳은 갈래길을 선택하게 하는 기회이다. 자신의 삶을 언제든지 선과 사랑으로 전향할 수 있게 하는 속성이 있다.

iii. **말씀(words)**: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참 동기부여의 힘.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훈련의 필요.

iv. **이웃 사랑(love one another)**: 예수님의 최고 계명이다. 이 계명이 모든 율법을 성취한다.